

고려해운

무로란항 주간기항 서비스 개시

고려해운(대표 박정석)은 오는 2월말부터 부산-북해도간 항로에서 기존 격주로 기항하던 무로란(室蘭)을 위클리로 강화한다. 로테이션은 부산-토마코마이-무로란-부산 순이다.

대한통운

신년산행 '글로벌 물류기업' 도약 결의

대한통운(대표 이원태)은 이원태 사장과 임직원들이 회사의 발전을 기원하는 신년 산행을 가졌다고 지난 2월21일 밝혔다.

또한 2월 19일 경기도 청계산에서 가진 신년 산행에는 이원태 사장과 본사 전 임원, 팀장을 비롯해 수도권 지역 지사장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특히 노동조합 집행부, 수도권 지역 지부장들도 동참해 노사 신뢰를 더욱 깊이하고 선진 노사문화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날 이 사장은 “지난해 사상 최초로 매출 2조 원을 돌파한 여세를 몰아 올해에도 경영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고, “특히 그간 노사가 합심해 회사의 발전에 함께 힘써온 것처럼 하나로 뭉쳐 세계적인 자산형 물류기업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대한통운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4.52% 증가한 2조 997억 원으로, 회사 설립 이래 최초로 매출 2조 원 시대를 열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4.43% 늘어 986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목표는 매출액 2조 2834억 원, 영업이익 1255억 원이다.

삼목해운

몽골정부와 합작선사 설립

몽골 광물자원의 해상운송과 해운산업 진출을 위한 한/몽골간 해운·항만분야 협력 MOU 체결 행사가 지난 2월 25일 서울(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작년 내륙국가 몽골이 우리정부에 해운산업 진출지원 요청 이후, 정부간 해운협력회의 및 민간투자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양국 민간·공공부문의 상호협력과 투자유치가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항만간 협력, 선박합작사업, 몽골해기사 양성 등에 대한 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몽골정부와 우리선사 삼목해운(사장 최운선)은 상반기 중 선박합작회사를 설립 하고, 4월부터 몽골 유연탄(약 만톤)을 몽골/단동/평양·당진을 통해 국내에 수출하는 해상운송시범사업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한/몽합작회사는사업초기에는 선박을 용선하여 광물자원을 운송하되, 향후 타바를고이 광산개발, 몽골내륙횡단 철도건설 등의 개통시기(2014년~)에 맞추어 광물자원의 대량수송 위한 전용 벌크선을 구입하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몽골의 해운인력양성 및 해운산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몽골 선원교육과 몽골 현지 해운·물류전문기관의 설립도 추진 중이다. 우선 연내 몽골 선원교육을 시행하여 우수 연수생에 대하여는 국내선사에 취업시켜 몽골선원의 해양경험을 익히고, 국내선사의 부족한 선원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간 양국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을 바탕으로 최근 민간분야에서 몽골의 해운·물류사업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향후, 몽골 광물자원과 연계한 물류터미널 등 물류시설 사업 진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했다.

KSS해운

정기 주주총회 개최

KSS해운(대표 윤장희)이 지난 2월 18일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는 감사보고, 영업 보고,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등의 보고사항과 함께 제27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사내이사 1명, 사외이사 3명), 이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감사보수 한도액 승인의 건 등의 의결이 이루어졌다.

한편 이날 개최되는 주주총회를 통해 KSS해운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윤장희 대표가 재선임되었다.

사외이사로는 하원만 현대백화점 비상근 상담역(前 현대백화점 대표이사 사장), 최재수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前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이 재선임된다. 또한 신규 사외이사로 조영길 현 I&S법률사무소 대표(前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선임되었다.

한진해운

초임사관 사령장 수여식 실시

한진해운(대표 김영민)이 지난 2월 18일 오전 경주 코오롱 호텔에서 2011년 신입 해기사 94명 중 1차 합숙 교육인원인 47명에게 사령장을 수여했다.

이날 김영민 사장 및 한진 SM 류재혁 대표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임 해기사들은 해상직원 인재상인 'TOP Seaman'을 주제로 드라마, 뮤지컬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를 실시해 큰 호응을 이끌어 내는 한편, 첫 항해를 앞두고 있는 신입 해상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번에 선발된 초임 해기사들은 지난 1월부터

부산에 위치한 국토해양부 지정 교육기관인 한진해운 운항훈련원에서 모의 선박 조종 및 직무 중심 교육을 수료했으며 4박 5일간의 합숙 교육을 끝으로 한진해운 선박에 직접 승선 수출입 최전방에서 각자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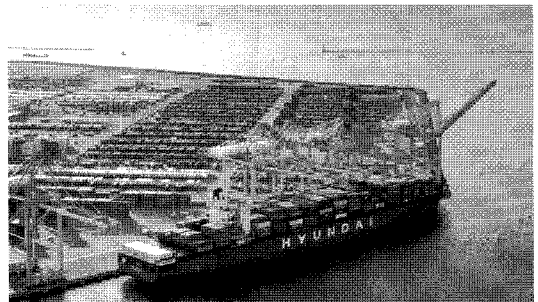
김영민 사장은 신입 해기사들에게 직접 사령장을 수여하며 "자신과 고객, 회사의 발전된모습을 만들어 내기 위해 노력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한진해운에 따르면 전문적이고 우수한 해상인력 양성을 위해 해양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박 승선 실습, 장학금 지급, 운항훈련원 체험 등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에 선발된 94명 외에도 120여명 정도의 추가 채용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

또한, 한진해운그룹은 올해 한진해운 육상직원 49명, 물류전문 IT 기업인 싸이버로지텍 15명의 신입직원을 채용, 해운 물류 전문 인력 양성에도 많은 힘을 쏟고 있다.

현대상선

미 컨테이너터미널 CUT 개장



현대상선(대표 이석희)은 지난 2월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항에서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인 CUT(California United Terminals) 개장식을 가졌다.

이번 개장한 CUT는 1992년 롱비치항에서 개장해 지난해 12월까지 19년간 운영하다 시설 노후화로 효율성이 떨어져 이번에 LA로 이전한 것이다.

이날 터미널 개장식에는 이석희 현대상선 사장과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Antonio R. Villaraigosa) LA 시장, 제럴딘 낫츠(Geraldine Knatz) LA항만 청장, 김재수 LA 총영사, LA 항만청 및 LA시의 유관인사, 주요 고객, 한국 교민 사회 관계자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장식은 경과보고, 하역시범, CUT 터미널 투어와 기념식을 겸한 만찬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석희 현대상선 사장은 “CUT 개장으로 미주 고객들에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터미널 부문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최고의 종합물류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 밝혔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이전한 CUT에는 주 1회 6,800TEU급 선박과 4,500TEU급 선박이 각각 기항한다. 미 서부 관문인 이 터미널은 On-Dock Rail 설치로 내륙운송 연계 서비스가 가능하며, 최신 설비와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으로 연간 화물처리량은 이전 전 96만TEU에서 이전 후 120만TEU로 25% 높아졌다.

이 터미널은 총면적 48만㎡(14.5만평), 수심 16.2m로 6,8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1척이 접안할 수 있다.

또한 22열까지 처리 가능한 겐트리크레인 4기, 터미널 내에 On-Dock Rail 서비스, GPS 화물 위치정보서비스 등 최고의 복합물류 항만서비스 시설을 갖추고 있어 운영 효율성과 비용절감을 실현했다.

한편, 현대상선 CUT는 시설관리 투자 및 철저한 안전관리 시스템에 힘입어 태평양 해운협회(Pacific Maritime Association)로부터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항만 터미널로 2002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6월 개장한 부산신항터미널과 미국의 WUT (Washington United Terminals), 대만의 KHT(Kaohsiung Hyundai Terminal) 등 자영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CUT(California United Terminals) 이전 개장으로 항만물류 사업을 새로운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현대상선은 2013년 현대 로테르담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개장을 앞두고 있다.

홍아해운 비전 선포식 및 워크샵 개최



홍아해운(회장 이윤재)이 지난 2월 11일~12일 양일간 경기도 양평에서 본사 및 지방점소 과장급 이상, 해외주재원 등 중간관리자급 이상이 참가하는 2011년 워크샵 및 VISION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홍아해운은 창립반세기를 맞이하여 ‘홍아 반세기! 새 시대, 새 문화’ 라는 슬로건의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또한 ‘HEUNG-A 2015’ 라는 VISION을 선포했다.

이날 홍아해운은 현재의 컨테이너 및 케미컬 운송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벌크 사업의 신규진출을 통하여 2015년까지 매출 1조1천억원을 달성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날 홍아해운에 따르면 VISION 선포식에 이어 참석한 직원들은 분임토의를 통하여, 매출 1조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한 MANAGEMENT,

OPERATION, SALES, IT의 4가지 방면에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토론하는 뜻 깊은 자리를 가졌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신규항로 유지 박차

경기평택항만공사(사장 서정호)가 중화권 주요 선사 임원들을 만나 항만이용 검토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지난 2월 20일 경기평택항만공사에 따르면 평택항 신규 항로 유치를 위해 중국, 대만의 우수 선사 12곳을 대상으로 항로 유치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

이날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중식당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코스코(Cosco), 차이나쉬핑(China Shipping), 완하이(Wan Hai) 등 선사 대표 및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중국선사 대표는 “평택항이 최근 빼어난 화물처리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중국과의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의 수도권 중심에 있어 화물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선사 관계자는 “평택항이 다른 항에 비해 입출항 관련비용이 저렴해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의 부두시설 현황과 향후 개발계획을 비롯해 항만 이용시 기여도를 살펴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집중 설명했다.

서정호 평택항만공사 사장은 중화권 선사 대표들에게 평택항을 이용할 때 장점과 경쟁력을 설명하며 평택항 이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올해 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목표를 지난해 대비 20% 상향 조정하고, 54만TEU 목표달성에 주력한다는 계획

이다.

부산항만공사 부산항만물류고 전문인력 양성 지원

부산항만공사(사장 노기태)가 항만물류 특성화고로 지정된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의 전문인력 양성에 두 팔을 걷고 나섰다.

BPA는 지난 2월 28일 11시 입학식을 갖는 부산항만물류고에 컨테이너크레인 등 5천여만원 상당의 교육기자재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실물 크기의 1/25로 제작된 컨테이너 크레인 모형과 2톤짜리 전동지게차 등으로 구성된 이 기자재들을 통해 학생들은 항만 물류 체험과 장비 기술 등을 익히게 된다.

BPA는 이밖에도 이들이 부산항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체험과 교육자료 협조 등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한편 부산항만물류고는 1978년 동원고등학교로 개교해 동명공고와 동명정보고 등으로 교명을 바꿔오다 지난해 8월 항만물류분야 특성화고로 새롭게 출발, 항만장비과와 물류자동화과를 신설하고 올해 263명의 첫 신입생을 받게 됐다.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 SNS 홍보 본격 개시

2012여수세계박람회(위원장 강동석)를 알리기 위해 유학생, 결혼이민자, 특파원 등 국내외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홍보가 본격화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9억4,400만원 규모의 '뉴미디어 홍보마케팅 대행사 선정' 사업을 공고하고, 3월 3일 조직위 대회의실에서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조직위에 따르면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과업종료

후 성과평가를 하고, 수행능력을 인정받으면 2012년도 대형계약 우선협상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조직위는 올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불어, 스페인어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등 SNS 홍보를 강화하고, 주제 확산을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등 뉴미디어 환경에 맞춘 홍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조직위는 대행사업과 별개로 SNS를 활용해 여수세계박람회를 알리는 내외국인들에게는 박람회 홍보에 상근·비상근으로 직접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참여형 홍보의 전형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뉴미디어 홍보마케팅 대행사 선정 사업 공고 내용은 조직위 홈페이지(www.expo2012.or.kr)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자세히 나와 있다.

울산항만공사 IAPH 지역회의 참석

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는 지난 2월 8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IAPH(국제항만협회)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지역회의는 ▲항만지속가능 경영 ▲해운 및 항만 공급사슬망 관리 ▲글로벌 항만환경변화 관련 세미나 등이 나누어 진행되었다.

UPA는 이번 지역회의에 참석하여 2011년 세계 항만 환경 변화에 따른 물동량 창출, 녹색항만 구현을 위한 UPA의 대응방안, 물동량 창출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5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IAPH 부산총회와 관련하여 부산항만공사(BPA)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과 홍보관 설치 등을 통하여 세계 항만 업계에 울산항을 알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IAPH는 항만 간 협력을 통한 교역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1955년 미국 LA에서 창립 이래, 세계 90개국의 정부 항만관리, 항만공사와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항만관련 관계자 및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기구로 UPA는 지난 2008년 1월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한국선급 제49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선급(KR, 회장 오공균)은 지난 2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에서 국내 해운, 조선, 기자재, 보험, 학계 및 정부관계자 75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 49회 정기총회를 갖고 2010년도 사업 결산 승인 및 비상근임원을 새로이 선출했다.

한국선급은 지난 수년간 국내외 해운 조선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매출 1000억 이상을 달성했으며 입급 선박 규모 11.4%(114척 증가, 총 2567척) 확대 및 요르단, 스페인 등 4개국의 정부검사권을 수입하여 총 세계 56개국의 정부 검사 권한 대행자격을 획득하는 등 이사들로부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한국선급 정기총회에서 소집된 비상근임원 추천위원회에서는 임기가 만료된 비상근이사 8인 중 5인 연임(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박범식 전무, 동원산업 박부인 사장, STX Pan Ocean

이종철 부회장, 한국선주협회 이진방 회장, 한국조선협회 한장섭 부회장) 및 5인 신규 선임(현대상선 이석희 사장, 한진해운 김영민 사장, 현대삼호중공업 오병욱 사장, 성동조선해양 정광석 사장, 장금상선 정태순 사장)됐다. 이로써 한국선급의 비상근이사는 기존 13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또한, 추천위원회에서는 비상근감사로 좋아하는 김태균 사장의 연임 및 창명해운 이경재 사장의 신규 선임을 결의했다.

한국선급 오공균 회장은 “세계 경기의 회복세가 더딘 가운데 한국선급은 양적, 질적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하여 한국선급 및 우리나라 해사계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선주 상호보험조합 국제품질경영기준 통과

Korea P&I(회장 이운재)는 지난 2월 14일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품질경영기준 심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KP&I에 따르면, 설립이후 그동안 개인적 역량에 의존하여 빠른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창립 10주년을 맞아 개인적 경영노하우를 조직의 역량으로 전환하기 위해, 단순한 인증서 획득 차원을 넘어 모든 업무프로세스를 매뉴얼화하고 최적화하여 대고객 서비스 수준을 상향 표준화하고, 클럽의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기능이 빠짐없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 효율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했다고 한다.

국제품질경영기준이란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으로써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 접근방법에 따라 모든 업무를 매뉴얼화하고 기준이 요구하는 엄격한 심사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번에 KP&I가 국제품질경영기준 심사를 통과

한 것은 KP&I의 서비스수준이 이미 국제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국제기구가 인정한 것이어서, 향후 국제신용등급 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 P&I는 지난 2월 20일 전 세계 선대를 대상으로 동시에 진행된 P&I보험 갱신 마감 결과, Korea P&I가 전년대비 약 20% 성장한 가입톤수 1,000만톤, 수입보험료 3,000만달러를 동시에 돌파했다.

이는 2008년도 수입보험료 1,000만달러를 돌파한 후 3년 만에 3,000만달러라는 괄목할만한 실질적인 성장을 이뤘다는 평가이다.

Korea P&I에 따르면 이번 가입 선대 증가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해외클럽에 가입해 있던 약 100여 척의 선박을 신규로 유치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Korea P&I 설립 초기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 상당한 선박을 차지해 왔던 일본클럽을 비롯한 해외 여러 클럽으로부터 대부분의 선박을 유치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항만물류협회 2011년도 정기총회 개최

한국항만물류협회(회장 김진곤)는 지난 2월 23일 그랜드 엠배서더 호텔에서 ‘2011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진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항만하역장비 현대화 자금 지원 사업’ 등 회원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과 ‘항만하역시장 안정화 방안 연구 용역 추진’ 등 항만물류산업의 건전을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을 언급하며, 2011년도에 협회를 중심으로 회원사들이 단결하고 어려움을 이겨 낸다면 항만물류산업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며, 협회 또한 더욱 더 회원사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회원사 권익 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협회 사무국으로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수지결산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 승인하는 한편, 2011년도 사업계획과 수입지출 예산(안) 등을 심의한 후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며, 사내 인사이동으로 사임한 동해항만물류협회장을 김송기 세방(주) 동해지점장으로 새로이 선임했다.

한국해양대학교 2011년도 학위수여식 개최



오거돈 한국해양대학교 총장은 지난 2월 23일 오전 교내 시청각동 등에서 열린 2010학년도 학위수여식에서 “대한민국을 해양강국으로 만들어 가야한다는 비전이 우리나라의 국정철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총장은 이날 “해양경쟁력은 바로 국가경쟁력과 동일시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며 “이를 위해서는 해양분야에 획기적인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고, 행정조직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양통합기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총장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들어 부산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 해양수산부 부활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일의 해양특성화 종합대학인 한국해양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란 점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오 총장은 이날 “최근 들어 바다의 중요성은 더욱 높게 평가되고 있고, 전 세계 410여 곳에서 해양영토 분쟁이 진행 중이고 바다로부터의 자원 획득에 선진열강이 앞 다투어 나서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엄청난 해양자원을 누가 먼저 발굴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가가 그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2011년 정기총회 개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총재 황규호)은 지난 2월 24일 11시부터 연맹 임원, 지방연맹 연맹장 및 대의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웨라톤 워커히호텔 컨벤션센터 4층 아트홀에서 2011년도 정기총회를 실시했다.

이번 2011년도 정기총회에서는 201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승인, 201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승인, 임원(재)선임 및 퇴임(안) 승인, 기타 토의 등의 주요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해양소년단은 지난해 연맹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연맹의 새로운 미래를 담은 비전을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획관리, 홍보출판, 조직활동, 훈육활동, 문화활동, 연수활동, 국제교류, 해양스포츠훈련장수상레저사업 등 8개 부문의 사업을 실시하여 대국민 해양사상 함양 및 청소년건전육성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올해는 ‘변화와 창출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라는 사업 목표에 따라 해양교육 연구 및 연맹활동의 방향성 확립, 조직 활동 강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체계적인 지도자 교육 및 관리, 홍보 강화를 통한 주요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중점으로 연맹을 이끌어 나가는데 의결했다.

또한, 해양소년단은 정기총회에서 부총재 3인(우련통운(주) 배요환 대표이사, (사)한국선급 오

공군 회장,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이중환 위원장), 이사 6인(SK해운(주) 김영진 상무이사, 남성해운(주) 김용규 상무이사, 천경해운(주) 서성훈 부사장,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우예종 국장, 한국해운조합 이인수 이사장, (사)한국선급 정영준 경영지원본부장을 선임하고 위촉패를 전달했으며, 고문 3인(일우선박(주) 서정권 회장, 우일상운(주) 이동규 회장, 한국해사재단 장두찬 이사장)을 선임하고 추대패를 전달했다.

이날 해양소년단 황규호 총재(SK해운 대표이사)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차별화된 노력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임직원 및 유관기관의 역량과 열정의 결집을 요청했다.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사센터(KMC)가입

한국해운조합(KSA, 이사장 이인수)은 해운시장 및 해상보험 관련 국내외 동향조사와 국제협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및 7개 해운관련 기관의 MOU 체결을 통하여 설립된 한국해사센터(Korea Maritime Center, KMC)에 가입하였다고 밝혔다.

조합은 한국해사센터 가입 승인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런던 사무소 파견직원을 선정하여 한국해사센터 설립 이후 숙원과제였던 영국 현지 법인화를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제해사기구 내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위상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해운-국제협약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조합에 제공하고, 특히 해외 재보험사와의 지속적인 업무교류 및 보험-법률-국제기구 분야에서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KSA Hull&P&I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재보험 협상력

강화로 최적의 재보험 시스템을 운영하며, 조합 해외 연락사무소 역할도 동시에 수행해 나가게 된다. 조합은 그동안 보험담당 전 직원을 해상보험 전문가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영국 Marsh나 독일 Minunch Re, 네덜란드 Post&Co와 같은 해외 전문기관 전문교육, 1년 코스의 장기 해외연수 등 해상보험분야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적인 투자를 해 온 바 있다.

조합은 이번 한국해사센터 가입과 현지 직원과 견을 통하여 해상보험분야 글로벌 핵심인력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해사센터(KMA)는 국내 해운 및 조선산업의 발전과 해상안전 및 환경보호에 관한 국제협력, 국제해사기구(IMO)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7년도 정부와 산, 학, 연이 공동으로 영국 런던에 설립한 단체이다.

해기사협회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한국해기사협회(회장 민홍기)는 지난 2월11일 201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가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 주요 내용으로는 201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을 집행부로부터 보고 받고 원안대로 승인했다.

아울러 '선원가족 및 외국인 혼승선박 생활 실태조사', '해기선원의 이가정성 해소를 위한 위성휴대전화 서비스',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 만료 사전예고 전국 확대', '해기사시험 기출문제집 발간', 「선원관련법 합리적인 개정 활동」 등으로 지난해 보다 4.64%증액된 총 11억 6,000만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 총회에 상정기로 의결했다. 또한 회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회장선거일정도 의결했다.

한편 한국해기사협회 제57차 정기총회는 오는 3월 16일 부산 마린센터 3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다.